

프로배구계, 학교폭력으로 '직격탄'

'학폭 스타'는 필요없다

학폭 폭로 '미투' 양상
승부조작 이후 최대 위기

흥국생명, 이재영-이다영
무기한 출장정지 징계

OK금융그룹, 송명근-심경섭
남은 시즌 제외키로

KOVO, 오늘 비상대책회의



흥국생명은 학교폭력으로 도마위에 오른 이재영과 이다영 자매에게 무기한 출장정지 징계를 내렸다. 사진은 지난달 26일 인천 계양구 계양체육관에서 열린 프로배구 V리그 여자부 흥국생명 VS GS칼텍스의 경기, 프로배구 올스타 팬 투표로 올스타에 선정된 흥국생명 이재영(왼쪽)과 이다영이 경기 전 시상식에서 트로피를 들고 기념 촬영하고 있는 모습이다.

대세 겨울 스포츠를 자부하던 프로배구 V-리그가 직격탄을 맞았다. 불씨인 원인은 다르지만 9년 전 불거진 승부조작 때와 버금가는 위기다.

V-리그가 학교폭력(학폭) 파문에 크게 휘청거리고 있다. 지난 10일 한 포털사이트에는 "현지 배구선수 학폭 피해자들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중학교 시절 총 4명의 피해자가 존재하면서 가해자가 했던 2가지 행동들을 낱말이 공개했다.

불과 하루도 안 돼 가해자는 흥국생명 이재영-이다영 쌍둥이 자매인 것으로 드러났다. 두 선수는 자신들의 폭력 행위를 시인하면서 개인 인스타그램에 사과문을 남겼다. 흥국생명은 무기한 출장정지 징계를 내렸다.

사흘 뒤에는 남자부 OK금융그룹 송명근과 심경섭이 도마 위에 올랐다. 중고교시절 벌인 악행들이 인터넷을 통해 폭로됐다. 이번에도 사과는 만 하루를 넘기지 않았다.

OK금융그룹은 학교 폭력을 인정한 송명근과 심경섭을 남은 시즌 제외하기로 했다. 5년 만의 포스트시즌 진출 도전은 사실상 물

건너가는 분위기다. 지금까지 드러난 가해자는 총 4명. 이들이 끝이 아닌 시작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는 배구계 전체를 긴장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이미 한 여자 선수를 겨냥한 새로운 폭로글이 등장했다.

구단 사무국장들 사이에서는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실제 한 국전력은 선수단 자체 조사를 진행해 '가해자가 없다'는 자체 결론을 내렸다.

구단의 징계와 별개로 프로배구를 주관하는 한국배구연맹(KOVO)이 적극 나서야 한

다. 아마추어 시절 벌어진 일이라고 손을 놓는 수준의 범주는 이미 벗어났다. 타 종목의 전례가 없다면 이참에 앞장서서 만들면 된다.

무엇보다 KOVO에게는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학창 시절 문제로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지금의 청소년들에게 전할 의무가 있다.

큰 불로 번지는 것을 막으려면 작은 불씨를 확실히 잡아야 한다. KOVO는 16일 사무총장 주관 비상대책회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현직 축구선수, 교사가 되다

전주시민축구단 오태환
중등교사 임용시험 합격
국내에서는 첫 사례
"꼭 K3리그 승격할 수 있도록
이번 시즌 더 열심히 뛴 것"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는 것이다. 오태환 선수는 전주 시민축구단 입단과 함께 대학원에 진학해 어렸을 때의 꿈을 이루기 위해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면서

부단히 노력했다.

전주시민축구단 오태환 선수(사진)가 최근 전북교육청에서 실시한 2021학년도 공립 중등교사 임용시험에 최종 합격했다.

현직 축구선수가 임용시험에 합격해 교사가 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첫 사례다. 오태환 선수는 전주대학교를 거쳐 지난 2017년 전주시민축구단에 입단했다.

입단 첫해부터 주전 공격수로 자리매김하며 지난 시즌까지 리그와 전국체육대회, FA컵 등 74경기에 출전해 82골을 기록했다.

특히 제98회 전국체육대회에서는 3경기 2골, 제99회 전국체육대회에서 2경기 3골을 기록하는 등 맹활약을 펼치며 은메달과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지난 시즌에는 사회복무요원 근무 등으로 인한 훈련부족으로 체력이 떨어지면서 많은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면서 전주시민축구단이 K4리그로 강등되는 아픔을 지켜보기도 했다.

축구선수로서 큰 활약을 펼치면서 기쁨과 슬픔을 모두 경험한 오태환 선수는 또 다른 꿈이 있다.

결국 오 선수는 주경야독의 힘든 과정을 이기고 임용시험에 최종 합격하면서 축구선수와 교사라는 두 가지 꿈을 모두 이룰 수 있었다.

오태환 선수는 "어렸을 때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는 것이 꿈이었다"며 "이번 임용시험에 합격해 교사와 선수 두 가지 꿈을 모두 이루게 돼 너무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원과 임용시험, 축구를 병행할 수 있도록 도와 준 감독님과 지도자, 구단 관계자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오태환 선수는 "전주시민축구단이 지난해 강등돼 올 시즌은 K4리그에서 시작한다"며 "전주시민축구단이 꼭 K3리그로 승격할 수 있도록 이번 시즌 더욱 열심히 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주시민축구단은 구단 출신으로 지난 2019학년도 공립 중등교사 임용시험에 합격한 조성문(강경상고 체육교사) 교사에 이어 두 번째 임용시험 합격자를 배출했다. /장은성 기자

백승호, 전북 이적 청신호... "5년 룰 제외, 협상 진행"

로컬 룰 적용 안돼

프로축구 K리그 '디펜딩 챔피언' 전북 현대의 관심을 받는 스페인 명문 FC바르셀로나 출신 미드필더 백승호(24·사진)의 국내 무대 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구단 관계자는 "백승호의 프로 계약이 5년을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소속 구단과 이적료 등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K리그는 아마추어 신분으로 해외에 진출한 선수가 만 5년 이내에 국내로 돌아올 경우 연봉과 이적에 일부 제한을 거는 '로컬 룰'이 있다. 5년 이내에 K리그로 돌아오면 최대 연봉이 3600만원으로 제한된다.

전북은 최근 한국프로축구연맹을 통해 스페인 축구협회에 백승호의 로컬 룰 적용 여부를 확인했고, 이적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백승호는 2016년 1월 바르셀로나와 프로 계약을 맺어 올해 1월 5년 룰 적용 대상에서 벗어났다. /뉴시스



전북 관계자는 "다름슈타트와 백승호 영입을 두고 협상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아직 확정된 건 없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상식 감독이 최근 인터뷰에서 백승호를 두고 "전북 스타일"이라고 밝히는 등 영입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K리그 복귀 가능성은 매우 크다.

백승호는 2010년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바르셀로나 유소년팀에 입단해 페랄라다, 지로나 FC(이상 스페인)를 거쳐 2019년 여름부터 다름슈타트에서 뛰고 있다. 전북에서 꾸준히 기회를 부여받았다면 다가올 도쿄올림픽 최종 엔트리 발탁에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백승호 영입에는 최근 전북의 어드바이저로 선임된 박지성도 지원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향후 국가대표 지도자·선수 선발 시 검증 철저"... 배구협회, 입장문 발표

대한배구협회가 학교폭력에 연루된 선수에 대해 모든 국제대회 선발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15일 학교폭력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최근 배구계는 학교폭력 파문이 불거졌다. '스타 플레이어' 이재영, 이다영(이상 흥국생명)을 시작으로 OK금융그룹 송명근, 심경섭의 학교폭력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협회는 "전문체육, 생활체육 및 국가대표 운영 단체로서 이번 학교폭력 사태로 인하여 많은 불의를 일으킨 점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현재 제기되고 있는 학교폭력

사건들에 대하여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유사한 사건의 재발 방지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학교폭력 가해자로 드러낼 경우 철폐를 내리기로 했다. 협회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학교폭력 가해자는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규정에 의거하여 2021 발리볼네이션스리그, 2020 도쿄올림픽 등 향후 모든 국제대회에 무기한 국가대표 선수선발에서 제외하겠다. 또한 향후 국가대표 지도자 및 선수 선발 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올림픽 정신을 존중하고 순수하며 페어플레이 정신으로 국가대표팀에 입할 수 있는 지도자 및 선수만

을 선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여자대표팀 주축 선수인 이재영, 이다영도 태극마크를 달 수 없다.

협회는 대한배구연맹(KOVO)과 함께 학교폭력 재발방지 및 근절을 위한 대책회의를 열어 공동대응을 할 계획이다.

협회는 "선수권의 보호 및 인권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협회 선수위원회와 별도로 스포츠인권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대한체육회 공정체육실 및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스포츠윤리센터와 긴밀히 협조해 학교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뉴시스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